

**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**

팩트폴니스

**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**

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, 무슨 책인지 모르고 있었음.  
그러다 어느날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책을 빌려줄려고 했는데 있어서 읽어보다  
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그대로 사서 봄

**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 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  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 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**

사실은 세계 인구의 절대다수가 중간 소득수준을 유지한다. 이들이 우리가 중  
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, 극빈층도 아니다. (중략) 세상은 해  
를 거듭하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. 모든 면에서 해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,  
대체로 그렇다.

중간 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를 합치면 인류의 91%에 해당하는데, 이들 대부  
분이 세계시장에 편입되었으며 상당한 발전을 이뤄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산  
다.

간극본능 : 극적인 대비를 선호한다. 사실을 통해 파악한다.

부정본능 : 나쁘게 흘러갈꺼라고만 생각한다. 나쁜일도 좋은일도 같이 일어난다

직선본능 : 변화는 선형이라고 믿는다. 오히려 S자 형태에 가깝다.

공포본능 : 공포에 쉽게 끌린다. DDT의 사례. 위험성을 계산한다

크기본능 : 큰 숫자에 넘어간다. CO2 규제의 사례. 비율을 계산한다.

일반화본능 : 사람은 끊임없이 범주화 한다. MZ세대, 맘충 등, 범주 자체의 기준  
에 의문을 제기한다.

운명본능 : 타고난 특성이 사람/국가/종교/문화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. 문화도

변한다는 것을 기억한다. 지식을 최신화 한다.

단일관점본능 : 단일한 원인 단일한 해결을 선호한다. 자유시장 신봉의 예, 평등 신봉의 예. 복잡함을 끌어 안아야 한다. 여러 생각을 섞고 절충할 줄 알아야 한다.

비난본능 : 기승전사람탯. 악당이 아닌 원인을 찾아라. 영웅이 아닌 시스템을 찾아라.

다급함본능 : 오늘 하루 특가! 이제 몇 개 안남았습니다! 심호흡을 한다. 데이터를 고집한다. (검증되지 않은)극적 조치를 경계한다

### **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**

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매번 오류를 저지르면서 볼 수 밖에 없는데, 그러다 보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불투명한 상태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.

팩트폴니스를 보면서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생각의 함정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.

투자나 예측을 할 때나 판단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 좋았다.